



제311호 2024년 12월 15일(다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한라솜다리(*Leontopodium coreanum* var. *hallaisanense*)

제1독서 스바니아 예언서 3,14-18ㄱ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손상오 신부 곡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2독서 필리피서 4,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 홍보·전산
오픈카톡

“만족”과 “감사”

농은수련원 원장
박지훈 디모테오 신부



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비해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이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혹은 사회적 지위와 직급에 따라 이익은 차등 배분되고, 이런 형태의 차등 분배는 자연스레 사회적 격차, 곧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격차는 구성원들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게 합니다. 적절한 사회적 격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자기 발전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자기 발전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격차라는 것이 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는 구성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절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진보가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동기부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서로의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아닌 무한 경쟁으로 피로한 세상, 시기와 질투, 편법과 부정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적절한 사회적 격차 안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격차 안에서 절망과 좌절이

존재하며, 무한 경쟁, 시기와 질투,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피로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읽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공동의 집-지구”가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이로부터 생겨나는 끝없는 소비와 버리는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끝없는 자기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써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차이”가 결국 “차별”과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참된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더 요구하지 마라” “만족 하여라.” 이런 요한의 이야기가 내포하는 의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 어쩌면 이 둘은 우리 사회 안에서 생겨나는 “차이”를 “차별”과 “불이익”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마련했던 요한은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주세요 <한라솜다리>

표지 사진 설명



H.M

한라솜다리는 국화과 여러해살이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식물입니다. 줄기는 곧추서고 회갈색 솜털로 덮여있으며 7~12cm 높이까지 자랍니다. 7~8월경에 노란빛이 도는 흰색 꽃이 피니다. 해발 1,500m 이상에서 살며 한라산 백록담 남사면의 급경사 암벽지대와 고산 풀밭에 생육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한라산에 서식하는 식물은 약 1,800종에 달하며, 제주도에 볼 수 있는 50여 종의 특산 식물 대부분이 한라산 고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라솜다리를 비롯한 다수의 식물이 기후변화와 불법 채취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자선 주일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동·식물 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성본당- 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목상글을 담습니다.

어디서든 춥지 말아요, 솜털 가득한 한라솜다리가 전하는 위로

겨울이 깊어가니 참 춥습니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저는 두꺼운 목화 솜털 외투로 완전 무장을 하고서야 외출할 엄두를 냅니다.



솜다리 ©허태임

저처럼 추위를 견디려고 솜털을 두르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름에 하나같이 ‘솜’이 들어가는 솜나물과 솜다리와 솜방망이가 그렇습니다. 식물로부터 털을 얻어 써야 하는 어설픈 저와 달리, 식물들은 보드랍고 따뜻한 털을 스스로 만들어 온기를 품습니다. 그

중 특히 보송보송한 털을 지닌 솜털 최강자는 솜다리일 겁니다.

솜다리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솜다리라는 말은 낮설어도 에델바이스는 익숙하겠지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부르는 노래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1969작)'에 등장한 덕분예요.

에델바이스를 우리말로 ‘서양솜다리’라고 합니다. 서양솜다리는 알프스 일대에 살고 우리 솜다리는 백두대간 산정에 삽니다. 높고 가파른 바위틈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매우 귀한 식물이지요.

추위와 매서운 바람에 맞서느라 솜다리는 몸 전체에 보얀 털이 촘촘합니다. 양증맞은 체구의 솜다리를 보고 있으면 작고 귀엽고 무척 소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는 곳이 얼마나 모질기에 그렇게 털을 뒤집어쓴 걸까, 가만히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솜다리는 '순수'라는 꽃말을 지녔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그리운 순간이 떠올랐는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솜다리를 압화해서 책갈피와 엽서와 액자를 만들었지. 그중에서도 가장 예쁜 걸 고르고 골라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선물도 했지. 그러한 일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있었어. 낭만이 살아 숨 쉬던 시절이었네요, 엄마. 저는 답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씩씩한 독백도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솜다리가 뽑힌 거야’ 하고요.



산솜다리
©국립수목원

솜다리의 형제 식물로 산솜다리와 한라솜다리가 있습니다. 솜다리는 백두대간을 따라 띄엄띄엄 살고 산솜다리는 그보다 드물게 설악산 일대에만 삽니다. 오늘 우리 주보 표지의 주인공 한라솜다리는 우리 행성에서 유일하게 한라산에만 삽니다. 그러니까 한라솜다리가 한라산에서 사라지면 그들을 이 지구에서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라솜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하겠지요.

식물 좀 아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한라솜다리가 꽤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등산을 즐기는 이들이 주로 찾는 구간에 한라솜다리는 사니까요. 한라산을 오르는 동안 아주 운이 좋다면 백록담 부근 암벽지대에서 한라솜다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자선 주일’입니다. 며칠 후면 동짓날이고요. 연중 밤이 가장 긴 때이지요. 별이 드는 시간이 짧은 만큼 추위는 강할 겁니다.

겨우내 열악한 환경에서 추위를 견디느라 고통받는 이들이 세게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 떨그럭 떨그럭 공허한 외침을 일삼는 어느 지도자와 어떤 집단을 목격하는 작금입니다. 그것 참 더럽고 비겁하다는 듯 한라솜다리가 내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먼 데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힘든 시절을 우리의 온기로 견뎌내자는 한라솜다리의 위로 또한 울려드네요.

춘양 본당 허태임 플로라 (식물분류학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원)

《허태임의 초록목록(김영사, 2022)》을 썼다.

한겨레21에 매달 「허태임의 산들산들」을 연재한다.



<영주성분도 어린이집>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 “지구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1)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2)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탄소발자국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3)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과 함께 연계하고 실천하며 사랑하는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 함께 지켜요'에서는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2024년에는 매주 <안동교구 소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 환경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지난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국민께서 놀란 마음에 밤잠을 설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치 행위와 행정 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나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일련의 사태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이루어 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 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하여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11월 25일(월)에 안동시립민속박물관(별관)에서 제8회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안동가톨릭 미술가회원 27명의 성화와 성물, 일반 작품 정기 전 개막식이 개최 되었습니다.



공소 봉사자 연수

11월 29일(금)~ 30(토)에 농은 수련원에서 공소회장단, 본당 공소부장, 공소사목 수녀, 공소 선교사 외 공소사목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소 봉사자 연수>가 있었습니다. (강사- 안영배 요한 신부님, 강의- 2025년 실천 사항의 의미와 우리의 참여)



안동신협

가톨릭과 함께하는 서민은행
정기예금 3.3% (1년)
안동시 태사2길 28(안동의료원앞)
T.054-859-1710

영주 독일 보청기

노인성 난청 전문
김 성 문 (스테파노)
영주시 구성로 333
(신호동 오거리 성누가병원 옆)
T.054-635-2498, 010-3693-7684

서울 프라임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치료·치주질환
원장 김재권 미카엘
안동시 옥동사거리
T.054-859-2879

서민 식육 식당

등심, 갈비, 차돌박이, 양지, 불고기, 삼겹살, 목살
점심특선: 주물럭, 불고기, 육회 비빔밥, 곰탕
전국 택배 가능
이택규 (마티아)
예천군 호명면 양지3길 21 (호명초 앞)
T.051-655-4994, 010-9494-4074

문경새재 임객정가든

40년 전통 손두부전문 능이버섯 한우두부전골
홍창식 안셀로 박순분 안젤라
문경읍 새재로 870번지
T.054-571-2285, 054-572-0027

안동 우리농

www.andongfood.net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며 모두를 살리는
생명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T.054-843-0128

(주)이우텍

디지털문화 콘텐츠 전문기업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유지보수
홈페이지: www.iwootec.com
T.054-843-5700

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 다미안 의원

피부질환, 레이저클리닉, 보톡스
(수익금은 사회복지에 위해 사용됩니다.)
영주시 봉화로 2(상망동)
T.054-633-6762



성진사우나

대표 김용숙 스텔라
송우근 바오로
문경시 중앙로 212
T.054-553-0059

아름다운얼굴피부과의원

피부질환, 피부미용, 보톡스, 필러,
레이저, 여드름, 아토피, 탈모, 비만,
검버섯, 점, 제모
피부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중원 요셉
T. 054-553-2079

대게 좋은날

대게, 회 식당 및 숙박운영
대게, 킹크랩, 랍스타, 찜&코스 요리, 회, 물회
다양한 메뉴, 맛있고 입이 즐거운 여행! 숙박까지
이복도 요셉, 김경숙 마리아
010-2520-1926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게길 37
T.054-732-8357

주보 광고모집

1. 주보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1회 3만원,
[타 교구] 1회 5만원

2. 단체 알림 광고 모집 안내

[교구 내] 4줄 무료(제목 포함)
[타 교구] 1줄당 5천원(제목 포함)

문 의: 사목국

054-858-3114~5
sa3119@nate.com

엘리마리

빙수 전문점
(콩고물, 카스테라, 망고, 초코, 딸기빙수)
김유경 엘리사벳 010-2831-8273
매봉 4길 14 (대동타운 아파트 앞)

가인 재가 복지 센터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노인주간보호
손순이 세라피나
상주시 무양 1길 46
T.054-535-8090

한국금거래소 상주점

골드바, 실버바 / 선물용 / 순금기념품
믿을수있는순도, 최고가 고금매입
신숙조 요안나
상주시 상산로 277
T.054-536-5000







교구장 동정



12월 15일 예신 종강 미사
12월 16일 울프레야 월레미사
12월 17일 참사회의

축하합니다

서품축일

12월 21일 정양모 바오로 신부
12월 22일 오성백 요아킴 신부

교 구

느티나무어린이

메리크리스마스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지도교수: 구명림 수녀
일 시: 12. 15(주일) 13:30
장 소: 갈전마리아 본당

2024년 예비신학생 모임 종강미사

일 시: 12. 15(주일) 14:00~ 17:00
(종강미사 15:00, 주교님 주례)
장 소: 교구청 강당
대 상: 예비신학생, 예비신학생 부모, 대신학생

안동교구 가농·우리농 송년미사

일 시: 12. 27(금) 14:00 본회창립일(46주년)
장 소: 농민회관 3층
내 용: ① 가농소 입식운동 20주년 마무리
② 교구장 권혁주 주교님을 모시고
의미있는 시간 갖기
문 의: 054-855-0127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 10(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제 단 체

청년연합회 총회 및 친교의 날

일 시: 12. 29(주일) 12:00~ 19:00
장 소: 계림동성당 및 상주지구 탐방
*교구 내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남성 제47차 꾸르실료

기 간: 1.9(목) 15:00~ 12(주일) 17:00 [3박 4일]
장 소: 농은 수련원
참가비: 1인당 160,000원
추천 인원: 각 본당 2명 이내
접수 기간: 12. 23(월)까지
신청 자격: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신청서 참조)
신청처: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봉사자 모집/안내

성령새신의 은혜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 기간: 12. 15(주일)~ 29(주일)
신청. 면담: 010-5105-5993 (담당 신부)

수 도 회 · 피 정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 시: 12. 21(토) 14:00
장 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 의: 010-3800-1579

청주 초정성령회관 2박3일 송년대피정

일 시: 12. 27(금) 20:00~ 28(토), 29(주일) 14:00
회 비: 2만원(청소년 무료)
강 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셔틀버스: 조치원역 18:20 출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출발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 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 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 서: <https://uus.pauline.or.kr/> 1.31(금) 마감
문 의: 02-944-0819~ 23, 010-5584-8945

상주가르멜 성소모임

고독과 침묵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에
부름받은, 봉쇄 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장 소: 상주시 내서면 우서로 80-21
연락처: 010-3502-0507 (08:00~ 17:00)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웅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기 타

안동교구사회복지회 금성카리타스요양원

대 상: 장기요양등급판정 어르신
주 소: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입소 문의: 054-832-6400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 정: 2. 14(토)~ 2. 25(수)
희년 이탈리아(대한항공)/ 455만원
3. 7(금)~ 3. 18(화)
희년 이탈리아(독일항공)/ 435만원
3. 11(화)~ 3. 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문 의: 02-2281-9070 www.cttour.org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2024년 가톨릭상지대학교 겨울학기

평생직업교육과정 모집

신청기간: 11. 18(월)~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lead.csj.ac.kr 접속 후 신청
총 23가지 수강료 할인 유형(최대 100%
환급 가능/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신청문의: HIVE센터(851-3007~8/lead.csj.ac.kr)

생성형 AI 활용 과정 무료 교육

일 정: 12. 21(토), 28(토)/ 12. 22(일), 29(일)
(각 2일 8시간)
시 간: 09:00~ 13:00
내 용: 생성형 AI(ChatGPT 등) 활용하기
(SNS마케팅, 동영상, 이미지, PPT제작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6

노비타스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 상: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음악 중점 교육과정 운영
문 의: 홈페이지 (novitas-s.goegp.kr)참조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유기농 100% 레몬차츰 판매

한 포에 100%이태리산 유기농 레몬이 하나
가격: 1통 10,000원, 3통부터 한 통당 천원 할인!
주문전화: 010-8962-9600

